

제426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임시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6월25일(수)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장 개선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기업부 소관
3.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1)
4. 2025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2)
5.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3)

상정된 안건

1. 소위원장 개선의 건 2
- o 소위원장(박성민·김원이·서일준) 인사 3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4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기업부 소관
3.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1) 4
4. 2025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2) 4
5.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3) 4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1분기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0.2%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가 올해 0%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전쟁 위기와 지속되고 있는 통상 리스크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성장의 주역임과 동시에 지역상권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와 채무부담으로 인해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제출된 제2회 추경안이 위기 극복이라는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된다면 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난 5월 1일 제1회 추경이 통과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주 만에 제2회 추경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분석과 그 대책을 충실히 반영하였는지 또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의 악화 우려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오늘부터 심사할 제2회 추경안에 불요불급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도록 편성 취지 및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추경안의 필요성과 집행 계획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장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이 배석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및 유종필 창업진흥원장의 불출석을 양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격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고동진·주호영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구자근·정동만 위원님께서 보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보임되신 정동만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반갑습니다. 부산 기장 출신 정동만 국회의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구자근 위원은 출장 중이라서 나중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정동만 위원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으로 새롭게 임명된 문신학 차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신학 제1차관,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축하드리고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안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위원장 이철규** 오늘 불출석으로 인하여 인사하지 못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인사는 다음 회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장 개선의 건

(10시09분)

○**위원장 이철규**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소위원회는 양 교섭단

체가 4개의 소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교대로 맡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 및 청원소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 및 예산결산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당 간사 위원님 간 협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은 김원이 위원님에서 박성민 위원님으로,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은 박성민 위원님에서 김원이 위원님으로 각각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결산소위원장은 강승규 위원님에서 장철민 위원님으로, 마지막 청원소위원장은 이연주 위원님에서 서일준 위원님으로 각각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장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개선된 소위원장을 포함한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 소위원장(박성민·김원이·서일준) 인사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소위원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산업특허소위에서 다루는 법안 하나 하나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를 좌우하고 에너지 안보와 국민 삶의 질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지난 2월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특별법, 이른바 에너지 3법이 여야 합의로 소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였고 협치의 좋은 본보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파를 넘어서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법안들도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반드시 입법 성과로 이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산업특허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총 219건에 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리라고 믿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이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중소벤처기업소위 소위원장을 맡게 된 김원이입니다.

산업 대전환과 기후 대전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 대전환과 기후 대전환이 준비된 사람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되겠지만 그런 기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분야는 굉장히 위기에 처해질 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대전환의 파고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은 아마 그런 대전환을 준비 있게 마련해서 잘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과 벤치는 이런 산업 대전환의 시기에 자칫 그 파도에 휩쓸려 희생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런 산업 대전환의 상황이 벤치의 성장이나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을 법적·제도적 장치를 저희들이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한편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위기입니다. 폐업의 위기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호해서 이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 역할을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어떤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겠다 이런 다짐을 해 봅니다.

소위원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일준 청원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위원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은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동료 소위 위원이신 김교홍·김동아·이언주·구자근 위원님과 함께 우리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면서 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개선된 소위원장님들께서는 법률안 또 예산안·결산 및 청원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구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1)

4.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2)

5.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3)

(10시15분)

○위원장 이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 정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 부진으로 인한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미국 관세조치 등으로 수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AI·재생에너지 투자 촉진, 수출 경쟁력 강화 등 3대 분야 총 4956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334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3261억 원을 신규 편성합니다. 구매가 10%를 지원함으로써 가전 소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석유화학 및 위기산업이 소재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저리 용자와 기술개발 등 37억 원을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전시회 개최 지원에 43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AI·재생에너지 투자 촉진에 1378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제조업의 AI 솔루션 적용 및 확산에 128억 원을 지원하고 AI 기반의 의약품 생산시스템 개발에 22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산업 분야의 AI 투자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보급 및 용자에 1118억 원을,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에 10억 원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촉진하겠습니다.

셋째, 수출경쟁력 강화에 23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력기자재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력기자재 수출 지원을 위해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K-소비재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24억 원, 해외 바이어 초청 및 무역사절단 파견 확대 27억 원 등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소비·투자·수출 등 분야의 필요한 사업을 추경안에 담은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과 여러분들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 연속 0% 내외의 성장이 지속되는 등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은 미 관세 충격, AI 기술경쟁 등 대내외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수 부진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애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 성장

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5월 4.8조 원 규모의 1회 추경에 이어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에 중점 투자하는 10개 사업, 총 1조 405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정상화, 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창업 생태계 기반 강화 등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폐업자의 빠른 재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실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하고 이자 경감 등을 지원하는 채무상환패키지 290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 점포철거비 등의 지원 상한을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하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17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AI 등 신기술의 혁신 및 활용 확산을 위해 투자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주도의 AI 대전환 사업에 500억 원을 편성하고 스마트공장의 AI 적용 및 고도화 사업으로 240억 원을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금번하고 있는 AI 등 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유니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모태조합에 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셋째, 딥테크 창업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AI 및 바이오 등 유망 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사업화 지원과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각각 420억 원, 120억 원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2000억 원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의 정상화와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에 착수하여 내수의 진작과 혁신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경안 규모는 이번 중앙정부 세출부문 추경액 20.2조 원 대비 2.5%인 4956억 원으로 내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AI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총 12개 세부사업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은 이번 추경안 128억 원을 포함해서 2년간 국비 299억 원을 투자하여 6개 업종별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산업데이터 확보 및 솔루션 구축 전반을 지원하려는 신규 사업으로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등 기존에 추진 중이었던 사업과 상호 보완되도록 지원 업종을 적정하게 선정하고 솔루션 결과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수요 기업의 참여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AI 기반 표적맞춤형 의약품 제조자율랩 기술개발사업은 이번 추경에 22억 원 등 향후 5년간 국비 374억 원을 투자하여 AI와 첨단로봇을 활용한 신약 개발 및 자동화된 의약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서 사업의 성과지표가 모델 개발 건수, 장비 설치 건수 등 단순 투입지표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존 공정 대비 개발 속도 향상 효과, 시스템 자율화 수준 등 사업 목표에 부합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전력효율 향상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일부를 환급해 내수 진작과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고자 326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2016년·2019년·2020년 등 반복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성과평가와 제도개선이 미흡하므로 가구별·지역별·소득분위별 환급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보급 확대를 위해 100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태양광 발전은 규모가 커질수록 전력계통의 안정성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므로 사업자 선정 및 자금 지원 기준 등 세부 집행계획 수립 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풍력·연료정지 등 다른 발전원도 균형 있게 육성·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자료 2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안 규모는 9905억 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총 8개 세부사업이 증액되고 1개 세부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의 내역사업인 제조혁신 구축 지원은 업종·공정에 특화된 특정목적형 인공지능의 도입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AI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4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수행 계획에 따르면 자율형공장 지원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 착수가 금년 12월,

대중소상생형 지원의 경우 10월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경 편성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각 과제별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입니다.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는 AI·딥테크 기업을 유니콘으로 육성하기 위해 AI·딥테크 스타트업 펀드에 2400억 원, AI·딥테크 스케일업 펀드에 1600억 원 등 총 4000억 원을 출자하려는 것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AI·딥테크 기업에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자펀드를 결성하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실투자까지의 기간과 미투자 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입니다.

소상공인재기지원의 내역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점포철거비 지원 상한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170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5월 말까지 접수된 신청 건수가 3만 2066건이고 월평균 6000건 내외의 신청이 접수되는 추이를 고려할 때 현 계획과 동일한 4만 613건의 지원목표 물량은 수요에 비해 과소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7%가 정부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해서 폐업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폐업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의 내역사업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물량을 추가로 1000개 확대하기 위하여 5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교체에 따라 지원 단가가 상승하고 지원 물량이 감소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교체가 필요한 소상공인 규모를 파악하여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고 일부 기술은 지원 목표 대비 지원 실적이 미달하는 상황이므로 추가 모집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소위원님들과 또 일부 출장 중인 위원님들 빼고, 오늘 가급적 오전 중에 대체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하니까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갑 국회의원 박지혜입니다.

장관님들, 차관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살펴보니까 어려운 민생경제 말씀하셨는데요.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의 깊은 고민을 담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산자부 예산에 대해서 여쭙보려고 하는데요. 전력효율 향상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금융지원 확대 이런 예산들이 지금 긴급히 편성이 돼서 앞으로 2030년까지 감축목표 달성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매우 의미 있고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추경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려운 민생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에너지복지 차원의 고려가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세부 집행계획을 세우실 때 반영하였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에너지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할인 대상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9년 대비 2024년에 37.4%가 증가했습니다. 이 복지할인 대상 가구가 1년에 추가로 부담하는 에너지 비용이 마지막 전기요금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1805억 원이 늘었다. 그래서 가구당 월평균 증가액이 지금 5534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발생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런 저소득층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혹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의된 바가 있으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복지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에너지바우처 사업 잘 아시는 바처럼 이게……

○박지혜 위원 예산을 많이 늘렸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금액은 많이 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 효율 개선 사업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1076억 원이 지금 할당이 돼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효율을 높여서 에너지복지를 좀 높일 수 있는 그 방향으로 하고 있고, 올해부터 에너지복지 부분을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이번에 추경에서 포션이 굉장히 큰 것이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 환급을 전 국민 대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에너지복지 지원 차원의 고려를 해서라도 차등적인 지원을 세부 사업계획을 설계하실 때 고려해 보면 어떨까 그런 차원의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유념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사실 이게 에너지 효율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고효율 가전제품 지원 사업이 얼마나 에너지 효율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는 저는 반드시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간 사업을 많이 추진해 왔으니 포함해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두 번째 질의는 현안과 관련한 것인데요.

저희 김용균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사망한 지 어느덧 6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일에 또 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은 발전소에서 세상을 떠났고 7일 후인 6월 9일에도 또 다른 산재가 해당 현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6년 전에 지금 당정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구조적인 원인을 조사해서 재발 방지,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했고 이후에도 제도적인 개선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위험작업의 경우 2인 1조 근무 원칙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공정 같은 경우는 위험작업으로 분류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빈도는 낮는데 발생하면 사망사고에 이를 정도로 강도는 높은 이런 정도의 사업인데 이게 단순히 수식화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공정은 위험작업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거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강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공정 같은 경우에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고 예방 관점에서 이런 위험작업 분류 기준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것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번 사고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고용부가 지금 사고대책본부 구성해서 산업안전 감독을 진행 중이고 이번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신속하게 보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지혜 위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도 하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관련한 보고도 본 의원실에 다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말씀하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안덕근 장관님 오영주 장관님, 추경 예산안 보고를 위해 국회 산자중기위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오영주 장관님은 새로운 장관후보께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 잘 전달해서 대한민국 중소기업과 벤처, 소상공인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장관님 마지막 역할 부탁드립니다. 잘 해 주시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리고 안덕근 장관님, 지금 한미 통상이 마지막 막바지를 향해 가는데, 지금 통상본부장님 방미하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김원이 위원** 장관님 아직 거취가 정해지지 않아서 좀 답답하실 텐데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두 장관님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책임지는 모습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산업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와 산업 대전환의 흐름에 맞춰서 에너지 대전환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김원이 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주도해 나갈 에너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김원이 위원 그동안에 사실 정부의 지원이 좀 없어서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에 추가로 100억이 증액되게 됐어요, 추경에서. 그래서 보니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나 학술정보 운영, 연구 특화장비 구축 등 이런 인재 양성을 위해서 쓰여질 예산 100억이 추가로 편성됐는데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제대로 지원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챙겨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고맙습니다.

오영주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김원이 위원 이번 추경에서 중기부 추경안이 굉장히 큼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아마 추경의 목적 자체가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인 거고, 내부 속사정을 살펴보면 코로나19와 비상계엄 이후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소상공인 채무 부담 개선을 위해서 2900억 그리고 그중에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들 분할상환을 지급하는 것, 그래서 코로나 피해자들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해 주고 1%의 이자를 탕감해 주는 거지요. 좀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 지급이 약 2800억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피해자들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1%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거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맞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리고 폐업 기업에 대해서 기간을 7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서 금리를 우대해 주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우리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에게는 큰 단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지금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채무 상환 역량이 있으신 분들의 여러 가지 채무부담 조정을 통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이 감사님.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안덕근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김정호 위원 이번 추경에 산자부 예산이 5000억 가까이 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중에 67%, 3441억 원이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절대적이다, 그렇지요? 대부분인데 이게 과연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이전의 이 사업들 결과를 한번 살펴봤더니 20년의 경우 수도권이 환급 건수나 금액으로 50%가 넘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지방은 인천마저도 6% 정도고 나머지 3% 이하도 수두룩합니다. 이게 결과가 프리미엄 고가 가전제품 중심으로 팔리면서 결과적으로 백색가전, 대기업들만 수혜가 집중되었다. 이렇게 너무 안이하게, 민생 안정이나 내수 진작을 쉽게 접근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고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답변드릴까요?

○김정호 위원 답변 좀 이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기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김정호 위원 이번에 중기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예산 관련해서인데 240억 편성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중에서 기초단계 구축 사업비가 23년도 제로, 겨우 저희가 국회에서 한 60억 정도 증액해서 조금 살리기는 했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 예산에도 제로입니다. 그런데 겨우 이번에 240억을 해서 기초 쪽에 뭔가 배려가 있는가 싶었는데 정작 수요가 많은 기초단계는 또 없고 고도화, 중간단계에 다 배정이 되었어요. 실제로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저변이 넓지 않은데 고도화할 데가 있었는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우리 중소기업의 AI 역량을 강화시킨다 하는 데 방점을 뒀기 때문에 빠른 AX 전환이 가능한 고도화에 집중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또 기초단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같이 함께 추진해 나가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이 갖고 있는 어떤 목적과 또 발 빠른 효과를 위해서 이번에는 고도화 단계에 집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내수 진작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나 대다수 61만 개 정도 되는 제조 중소기업들 중에서 스마트팩토리로 그나마 수혜를 입었던 데가 2만 5000개에 불과해요. 전체 기업 수 비중으로 보면 0.4%인데요. 일부 잘나가는, 그나마 중간단계에서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꼭 지원을 안 해도 된

다고 봅니다. 대다수 수요가 많은 기초단계 중소기업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배려가 되어야 짧은 시간에……

그나마 한 기업에 한 1억 정도 되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240억이라도 그런 데 풀려야지만이 어느 정도…… 그것도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이게 좀 경기 진작이나 내수 진작이나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추경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것도 너무 쉬운 방법이다, 너무 안이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AX 전환이라고 하는 추경의 꼭지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편성한 건데 기초단계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지자체와 함께. 앞으로도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기업 이런 쪽에도 당연히 빛도 탕감해 주고 이자도 보전해 주고 재기도 지원하고 하는데요. 정작 더 많은 고용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AI가 꼭 그렇게만 쓰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런 쪽에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꼭 스마트공장이 아니라도 AI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지자체와 함께하는 예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역경제를 살피는 차원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까 고효율 가진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20년 때 저희가 평가를 해 보니까 지역 편중이 좀 심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 지역 신청 편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정보 취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대기업에 집중된 것이 표면상으로 보면 아무래도 삼성·LG 가전제품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중소·중견 업체들도 사실상이 사업의 한 60%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매출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꼭 명심을 해서 이게 특정 대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스타일러라든지 건조까지 되는 그런 세탁기라든지 고가…… 대부분 고효율이지요, 그런 것들이 편중되었고 그것을 구매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든 수도권이든 이게 구조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황 자체가 당초 추경 목적 취지에 좀 부합한 것은 아니다 이걸 지적을 드리고, 그래도 그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위원 장관님, 여한구 본부장께서 워싱턴 가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이연주 위원 이제 중동 정세가 안정이 됐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관세전쟁으로 복귀를 하실 것 같은데 아마 동아시아, 한일 쪽에 압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월 9일이면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다 정리해서 협상까지 완료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어느 정도는 로드맵이 나와서 제시가 되고 서로 큰 틀에서는 뭔가 방향에 대한 합의가 되어야 7월 9일 날 일방적인 뭘 당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이연주 위원 특히 보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사실은…… 그동안에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하면서 중국 제조업이 굉장히 굴기를 실질적으로 했지요. 그래서 그전하고 달리 사실 중국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고 이미 많이 추월을 한 상태고,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제조업 면에서는 정확하게 보완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협력할 부문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서로 간에 굉장히 중요한 협력관계인데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보다는, 물론 우리가 내놓을 것은 내놔야 되겠지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든 한국의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나면 우리가 도울래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제조 생태계가 파괴되면 미국을 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설명을 하셔서 조선이라든가 에너지 그리고 AI, 제조, AX 분야 이런 것들, 미국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얘기해 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빠듯하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추경안 보니까 지역산업위기대응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36억 6500만 원 신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경영정상화, 위기산업 고부가가치 전환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취지는 맞는데 이것은 금액이 너무…… 이걸로 무슨 고부가가치 전환 지원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제조 굴기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거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금액으로는 좀 상당히 부족,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추경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대로 세워야 한다. 장관님, 한계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울고 싶은 지경이니까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산업위기대응 지역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번 2차 추경이 민생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좀 키워 가지고 전면전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 점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유념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번 주 내내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협의를 하고 금요일까지 협의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 끝나고 돌아오면 국회에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 상황 보고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산업 협력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원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국과 건설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아까 위기…… 고부가가치 전환하는 문제는 사실은 꼭 따로 그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예산을 잡지 않더라도 다른 일상적인 예산 항목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잘 좀 하는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검토를 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산업부 안덕근 장관님, 오영주 장관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안덕근 장관님은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를 성공시키신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 원전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산업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셨다 하는 점에서 축하드리고 또 감사 인사를 말씀드립니다.

체코 원전을 수주한 것은 사실은 이것이 결국은 외교적인 성과 또 산업적인 성과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동유럽에서 원전을 계속해서 추가로 수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K-원전 브랜드도 만들어 줄, 그 가능성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점에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원전산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 틀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추경만 봐도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는 1100억 원 정도 추경이 배정되었는데 원전 관련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추경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하시지 않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추경의 방점이 민생하고 직결이 되는 거다 보니까 좀 바뀌어 있는데요. 에너지 관련돼 있는 지금 정책에 대해서는 새 정부에서 상당히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좀 균형 있는 에너지정책으로 갈 거라고 믿고 있고요.

특히 체코 원전 관련해서는 사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계, 우리 산중위 차원에서 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원 위원 사실은 에너지정책이 확 바뀌었을 때 우리가 소중하게 만든 성과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고요. 사실 추경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보면 신

재생에너지 보급지원하고 에너지 금융지원이 있는데, 원전도 관련된 기자재 등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전사업 부분이 아예 통째로 하나도 없다는 부분은 좀 아쉽다. 또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해서도 너무 발전원별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쉽다. 태양광에 집중되어 있던 부분은 아쉽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경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 취임하시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졸속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산업부 차원에서 장관께서 떠나시더라도 과연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또 성과를 평가하느냐는, 좀 제대로 하셔야 되겠다. 이제부터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수석전문위원님이 쓴 검토보고서도 읽어 보면, 첫 번째 전산업경쟁력강화 지원 같은 것도 보면 그동안 한 1년에 지원한 숫자에 비추어서 지금 올해 23개 전시회 하는데 50개 전시회를 갑자기 추가로 하반기에 하겠다는데 언제 공고해서 이것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러면 이것 돈만 책정해 놓고 돈 뿌리고 결국 예산을 따 가는 데 이력 있는 그런 사업자들, 업자 배불리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입니다. 수요도 없는 그런 전시사업 하지는 않을까, 인증되지 않은 전시사업 하지 않을까…… 그래서 디테일을 좀 챙겨 달라는 말씀을 꼭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말씀하신 부분 신중히 검토하고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이 계획을, 좀 더 디테일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고효율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으로 바꾸는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환급사업.

○나경원 위원 환급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요. 보니까 지금 소외된 지역 애기도 하시고 고소득자나 이렇게 수혜 계층의 숫자 또 수혜액의 숫자, 액수 같은 것이 결국은 고소득층한테 집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이 가전업체들이 미리 쓸데없이 돈을 올려놓고서는 환급금은 결국은 국민들한테, 소비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전업체한테 이득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전업체가 새로운 제품이라고 묘하게 포장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전 가격을 인상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나머지는 다 지적하신 거라서 추가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유념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경원 위원 그냥 오영주 장관께서는 재난지원금 하는 데 온누리상품권하고 지역화폐 문제에 있어서 온누리상품권도 일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시지 그랬나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역화폐하고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김종민입니다.

먼저 산자부장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위원님.

○김종민 위원 이번 추경에 보니까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 예산이 증액된 게 있어요. 그런데 10억이 증액됐는데 지난번 작년 우리 예산소위 때 20억 증액으로 안을 통과 시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면 이것 20억을 하지 왜 굳이 10억을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게 협의 과정에서 10억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종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됐는데 이 정도는 설득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집행 가능성을 봤습니다.

○김종민 위원 어떻게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주로 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장비는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 장비 심의를 받아야 돼서 지금 시점에서 하면 불용이 될 가능성이 커서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장비분납금 또 신규 장비 중에 금년도에 다 집행 가능한 부분만 감안해서 그 부분이, 집행 가능성이 많이 감안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당사자들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울산이나 광주과기원하고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집행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금 장비 13억에다가 그다음에 재료비, 시험인증비 이렇게 해서 2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애초의 예상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요 다시 한번 광주과기원, 울산과기원하고 협의하셔서……

이게 다 잡혀 있는 예산이에요. 올해 쓸지 내년 쓸지만 결정할 건데 굳이 이런 것들 가지고 현장 목소리를 이렇게 무시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김종민 위원 그다음에 중기부장관님, 제가 2개 질문드리는데 같이 모아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기부에서 AI는 과기부 것이라 해 가지고 과기부 사업으로 이렇게 하려는 이런 얘기가 있는 모양인데, 제가 늘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기술개발은 과기부에서 하되 산업 적용은 산업부하고 중기부에서 해야 된다. 특히 지역 주도 AI 대전환은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AI를 적용하는 사업이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것은 당연히 정책적으로나, 기존에 있는 정책도 그렇고 그다음에 금융 또 지자체의 협력 그다음에 관련된 기관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당연히 중기부에서 주도를 해야 실증사업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이 점에서는 예결위에서 또 탄 얘기 안 나오게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김종민 위원 그다음에 모태펀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모태펀드 예산 이번에 잡혔는데 이번 예산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중기부에서 얼마 전에 글로벌 민간 모태펀드 얘기를 하셨어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것 참 맞는 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게 진도가 좀 안 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글로벌, 그러니까 이 모태펀드가 민간화돼야 될 필요성이 너무 큼니다. 지금 현장에 가 보면 일반 VC들이 모태펀드에서 돈을 100억을 받아요. 나머지 100억을 모아서 200억짜리 펀드를 운용한다. 100억 LP 모집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은행에다 얘기해 보면 은행은 또 자기들 위험가중자산 평가가 있기 때문에 대체 투자를 못 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은행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CVC 같은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CVC가 혁신 투자를 안 합니다. 그냥 대기업, 보수적인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벤처 생태계, 혁신 투자 생태계와 잘 안 맞아요. 그러면 저는 대기업이나 은행권의 자금을 유입하는 방법은 민간 모태펀드가 맞다고 봅니다. 민간 모태펀드를 대규모로 은행이나, 그러면 대기업이 쉽게 출자를 할 수가 있어요, 개별 VC한테는 좀 부담스럽지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많이 모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일반 독립 VC 중심으로 자금 출자를 해 주는 방식으로 빨리 바꿔 줘야 돼요. 그러려면 민간 모태펀드 두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있는 벤처투자 같은 것 이 재원 가지고 좀 정부가 투자하고 글로벌펀드 그다음에 은행권, 대기업 모아서 민간 모태펀드 만들고.

성장금융이 있잖아요. 성장금융은 사실 민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민영화를 해서 글로벌 민간 모태펀드로 좀 전환을 시켜서 민간 모태펀드 한 3개 정도를 만들어서 VC들한테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바꿔 주면, 지금 VC의 문제가 뭐냐 하면 성과를 많이 낸 경력 VC(벤처캐피털리스트)들이 뭘 하나 하면 사업체를 선발하는 것, 발굴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돈 모으러 다녀요. 펀드 모으러 다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래 가지고는 벤처 생태계가 안 굴러간다.

이 점에 대해서 글로벌 민간 모태펀드를 빨리 조기에 현실화하는 이런 정책 속도를 내서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장관이나 차관 들어서면 성과가 날 수 있게 인수인계를 잘 좀 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기부가 인프라나 LLM 개발을 한다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AX나 기업에 적용하고 AI를 내재화하는 것은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기부에서, 특히 중소기업의 부분들은 담당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부 간 내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낸 것도 그런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AX, 지역기업의 수요에 맞는 방식으로 공급 기업과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중기부의 AX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 영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 많은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금융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민간 모태펀드가 형성되었습니다. 작년에 형성이 돼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기부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꼭 민간의 여러 가지 LP의 기반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연기금이라든지 퇴직기금 등과 같이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 소스가 저희 벤처투자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중기부가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2개, 3개 만들어서 민간 모태펀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열심히 제가 인수인계 잘 하도록……

○**김종민 위원** 지금 성장금융 같은 정도의 규모로 민간 모태펀드가 좀 복수로 나와야 돼요, 빨리. 안 그러면 VC들이 맨날 은행 쫓아다니고 연기금 쫓아다니고, 그 영업 하느라고 어떻게 벤처투자하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알겠습니다. 잘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 위원** 허종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셔서 사실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부가 바뀐 지 20여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정부를 빙자한 불법 정책자금—오영주 장관님 소관이시기는 한데—이게 너무 확산되니까 할 수 없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정부가 바뀌어도 남아 있잖아요,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료 한번 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좌측에 있는 게 정부가 실제 한 정책자금 설명입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허종식 위원** 오른쪽에 있는 게, 우측은 사기 불법 광고입니다. 너무나 똑같습니다, ‘정책자금이란 정부가 보증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용자(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정부가 한 것처럼 보입니다.

넘겨 보세요, 다시.

이것 인천 사업자들한테만 이렇게 불법으로 사기 대출한 건데 ‘인천 사업자 최대 3억 특별자금조달’, 보시면 ‘대한민국 정부 정책자금’,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정부 정책자금 같습니다. 신청서 보시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요. 이게 금융사기로 이어집니다. 지금 정부 교체기에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다음 넘겨 보세요.

보면 문양도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다음 넘겨 보세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도 이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법금융광고 사

전 차단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실제 해 보면 어려운데. 정부가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이게 확산되고 있으니깐 더 관심을 갖자는 거지요.

한 번 넘겨 보세요.

이것 보시면 ‘이재명’ 나왔는데 이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인 2019년입니다. 밑의 불법 대출 명함을 보시면 이때만 하더라도 옛날식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정부 것을 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억 대출, 최대 이자 2~4% 하니까 이게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금융사기로까지 이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교체는 이것은 우리의 관심 사항이지 어려운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다 대한민국 정부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맞습니다.

○허종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되더라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제가 진차 신신당부드립니다.

어떠세요,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여러 분도 말씀을 많이 주셨고 저희도 지난 1년 내내 이 부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TF도 꾸리고 또 네이버라든지 정보 포털에서 상위 부분에는 저희 중기부와 관련돼 있는 공식적인 그런 내용들만 나오도록 하는 조치도 했습니다만, 또 여러 지역·층을 통해 가지고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 처벌되지 않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리고 이러한 브로커의 정의도 없고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법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가져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중기부 내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조금 더 완성이 되면 저희가 말씀드리고 국회와 함께 어떻게 하면 더 근본적인 브로커 단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국회도 정부랑 같이 힘을 합해서 법 부족한 것은 잘 만들어서, 피해자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감사합니다.

○허종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허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상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박상언 위원 제가 마지막이에요?

○위원장 이철규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언 위원 마지막이 돼서 영광입니다.

오래간만에 뵈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산업통상부 안덕근 장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조금 전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전력효율 향상과 관련해서 3260억가량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2016년 2019년 2020년, 세 차례 시행됐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없었고 제도개선이 미흡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과거에 세 차례나 시행됐었는데 성과평가 자료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아까도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것 평가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금 미진한 부분이……

○**곽상언 위원** 성과평가 자료를 한번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제출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성과평가 자료가 제대로 없는데 지금 또 시행되는 것이라면, 네 차례나 시행되는 것이라면 이게 3000억가량의 예산이 낭비되는 수가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서는 있고요. 아까 그래서 지역 편중이 있다거나 일부 품목에 좀 치중했다 이런 것들이 그 평가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곽상언 위원** 실제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직접적인 소득을 얻는 사람은 고효율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곽상언 위원** 일반 소비자는 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국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세 차례나 시행됐다는 게 저는 좀 놀라워서, 이번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리고 오영주 장관님께 잠깐 여쭙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보시면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 6월 소비자심리지수를 보게 되면 108.7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고 100 이하가 되면 소비자가 경기를 비관적으로 본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두 번째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이렇게 여러 뉴스를 보게 되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비심리가 4년 만에 지금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해요. 이것은 아마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있고 지금처럼 2차 추경의 편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경기가 좀 나아질 거라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화면 좀 보여 주세요.

그런데 소상공인체감지수라는 게 있어요. 소상공인체감지수는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Business Survey Index)라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 미만이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본다는 것이고 100 이상이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만 대상이 소상공인이 실제로 경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표를 보시게 되면 지난해 12월—비상계엄이 있었던 때지요—그때 그다음에는 100 이하가 아니라 47.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달, 그러니까 대선 이후인데

그때는 70입니다. 지금 거의 한 80% 이상 올랐는데 그래도 100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경기를 아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소상공인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1차 추경에서 4.8조를, 소상공인에게 굉장히 집중된 추경을 해서 곧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상언 위원 추경이 반영되면 좀 나아지겠다는 말씀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번의 1차 추경 자체가 소상공인 쪽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온라인판매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 있는 소상공인들, 저희가 봤을 때 도매업과 그리고 식당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소비심리지수가 가장 낮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순한 정부 지원의 부분만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경영상의 부담을 조금 더 덜어 드리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번에 채무부담 조정을 다시 한번 넣게 된 것입니다.

○박상언 위원 지금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낙관론에 반해서 현실 경기는 매우 어렵다는 의미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맞습니다.

○박상언 위원 그래서 추경으로 소비가 진작되면 좋겠는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지난 코로나19 이후에……

한 2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마지막 하시니까 2분 더 드리고 끝내시지요.

○박상언 위원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굉장히 늘어났고 저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영난이 지금 최악에 이르러 가지고 폐업하는 폐업률이 매우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근본적인 문제에 이르렀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단기 부양을 넘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박상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불법적인 내란사태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들께서 4개월 넘게 막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있는 제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 일대는 시위로 인해서, 집회로 인해서 생존의 위협까지 겪기도 했어요. 이분들은 특별한 국가적 상황 때문에 특별한 손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특별법을 발의했고 지금 안 계시지만 오세희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지난 대선 당시 우리 당의 대선공약이었는데요. 이 해당 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도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담당 국장이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 아까 고효율기기 환급사업 관련해서 그 생산자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 말씀을 하셔서 가지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걸 하게 되면, 특히 이번에 냉방기기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이렇게 오래된 냉방기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최근에 나온 인버터 기술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최신 기기로 바꾸게 되면 전력요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정말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서 수요자분들도 상당히 큰 혜택을 볼 수가 있고 국가적으로는 전력수요를, 소비를 상당히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대기업이 최종적으로 물건을 팔게 되더라도 거기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전체의 60% 정도가 혜택을 보는 걸로 저희가 20년에 했던 사업들 평가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 부분에 너무 치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곽상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집행되면 직접적인 수혜는 이런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업자가 받아 가는 것이고 실제 소비자는 전기 소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고 그 간접적인 혜택도 전기 소비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장기적이라는 것이지요. 지출 자체는 물건을 새로 구입하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직접적인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은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된다고 제가 강조드리는 의미에서 제언드린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곽상언 위원님.

그리고 질의하실 분들 끝났는데 허성무 위원님께서 꼭 하실 말씀이 있어 가지고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허성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허성무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

○**위원장 이철규** 예.

○**허성무 위원** 중기부장관님, AI 전환 예산, 기존 예산이 있는데 추가로 해서 지금 500억 되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허성무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7개 지역에 70억씩 나눠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나누어 준다고보다는 지방의 수요를 보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심사해서 지방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허성무 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안 가고 기다리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리고 또 각 지역마다 제조공정이 다 다르잖아요, 전통 제조업하고. 그러면 이 AI 솔루션에 대한 수요도 또 다를 거고. 그래서 이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만 지원 규모를 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허성무 위원 지금은 급하니까 일단 어바웃으로 7개 지역에 70억씩 이렇게 해 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수요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허성무 위원 그다음에 AI 솔루션을 보니까 파인튜닝(fine-tuning) 기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AI 솔루션 기반이 이것밖에 없느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아닙니다.

○허성무 위원 제조공정에 따라서 적용돼야 될 AI 솔루션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양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파악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꼭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추정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이슈고요. 그리고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수요도 파악을 했고 그중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큰 부분들을 아주 급하게 저희가 7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 주신 대로 이 모델이 더욱더 확산효과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생태계 자체를 일굴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에 굉장히 많은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꼼꼼히 챙겨서 꼭 AX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렇게 AI를 기존 제조업에 보급해서 성공 사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허성무 위원 그러면 대표적 성공 사례들을 좀 홍보하셔서 빨리 확산이 되도록…… 우리 기업인들이 그렇잖아요, 남 잘되는 것 보면 금방 따라 하고 싶어 하고 초기에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보급할 때는 온갖 불만들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불만들을 빨리 없애고 ‘빨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확산을 시켜 내기 위해서는 성공 사례들에 대한 홍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렇습니다. 꼭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자부장관님,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이야기를 하셔서 좀 중복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번이 다섯 번째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2016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한 번 했고요. 2019년에 코로나 말기에 오면서 시범사업으로 했고 그다음에 그 시범사업을 보고 2020년에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환급액을 보니까 2020년에 약 3000억 정도예요. 그러면 이게 10%면 실제 매출은 3조

라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이번에도 한 320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실제 매출은 3조 2000억 이렇게 돼서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이전 해 동 기간 내지는 그 전달이라든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진짜 이게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얼마만큼 기여했는가 이런 분석이 지금은 필요할 때예요. 이번에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이런 분석이 있어야 된다. 아까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가구별, 소득분위별, 지역별 이런 구체적인 분석들이 이번에는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대의견을 제가 강력하게 제시를 하는 바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꼭 명심해서 저희가 이번 사업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나중에 산중위하고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야 다음에 이 사업이 또 필요할 때 더 효과적으로 하지 않을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허성무 위원님.

저도 몇 가지만 당부 겸 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우선 잠시 전에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도 하셨고 객상언 위원님 또 나경원 위원님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전력절감제품 구매 예산이잖아요. 지금 추상적으로 3200억 정도면 10%를 지원해야 된다 할 때 3조 2000억 정도의 수요를 창출한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가전제품의 연간 시장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제가 그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위원장 이철규 그런데 제가 왜인가 하면 우리가 이번 예산이 민생예산이잖아요, 민생. 어려운 분들 또 그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 예산인데 과연 이걸로 신규 수요가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까, 투입되는 재원에 비해서 효과가, 과연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것도…… 가정에서 사용하는 게 예를 들어서 대체 수요, 그러니까 대체 구매를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신규 수요를 지원해 주는 건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쌀 때 사자 해 가지고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지원이 된다면 취지하고 조금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분들, 서민들이 꼭 사고 싶었는데 좀 어려워서 부담 때문에 못 산 사람들에게 돈 지원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효과가 나타날까 하는 의구심이 드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구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다음에 잠시 전에 허성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AI 보급·확산을 위한 중기부 예산 있잖아요. 500억이 들어가 있던데 이걸 일곱 군데 정도 한다고 했는데 명확하게 이게 개발 예산입니까, 아니면 보급 예산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기본적으로 지역특화돼 있는 산업·기업군들 중에서 AX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개발한다든지……

○위원장 이철규 솔루션 개발하는 거나 기술개발에 치중한다면 이걸 역량 있는 기관에 다 줘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공유할 수 있게끔, 확산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걸

쫓겨 가지고 여러 군데에 나누면 과연 선택과 집중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부터 정부 내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던 걸 제가 들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그런데 위원장님,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사업의 영역별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 모델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하나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걸 만들어 가는 민간의 스타트업·벤처와 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간의 연결점을 잘 만들어 주고 플랫폼을 형성하면서 그렇게 만든 AI 모델이 특정 산업에는 다 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중기부장관님께, 또 여기에 중기부의 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들이 계시는데 말이지요.

우리 정부가, 우리가 계획경제를 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제일로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반영되는 게 시장이라는 기능이잖아요. 시장의 기능인데, 우리가 자꾸 창업을 지원한다 말입니다, 창업.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창업함으로써 이 창업의 효과가 우리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에 창업 지원을 한다면 그 창업의 지원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중의 몇 개만 성공을 해도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이게 아니라 커피숍을 창업하는 데 지원을 해 주고 라면가게를 하는 데 창업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라 해 가지고 소비시장에 계속해서 정부가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시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장님, 저희가 창업 지원이 비테크가 있고 테크기업 창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소상공인 창업에 있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술창업인 경우에는 지금 많은 스타트업도, 저희가 딥테크에 집중해서 해서……

○위원장 이철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하는 건 괜찮은데요. 골목상권을 살린다고 해 가지고 창업 지원한 데가 청년창업이니 뭐니 하면서 계속해서 신규 창업을 하면 이 창업 자금의 지원이 시장의 질서를 왜곡시킨다 이겁니다. 기존에 성실하게 기술개발, 그 기술이라는 게 꼭 하이테크 산업이 아니라 소비재시장에서도 자기가 좋은 레시피를 개발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경쟁자가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질서를 왜곡시키면 같이 망하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예. 그런데 그런 부분……

○위원장 이철규 저는 우리나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자영업자 숫자 자체는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위원장 이철규 너무 많습시다,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공급이 계속 늘게 되면 공급자들이 결국은 다 같이 공멸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자영업에서 성공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자영업이 얼마든지 늘어도 괜찮은데, 시장의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계속 창업해서 자영업에 뛰어들다 보면 결국은 자영업 생태계 전체가 파멸의 길로 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위원장님, 저희가 소상공인 창업 자체의 지원보다는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제품의 개발이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마켓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걸로 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의 자영업자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영업자가 소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러니까요 기술을 개발하는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이런 창업에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소비시장의 자영업자들을 마치, 지원이 이게 복지의 개념으로 막 지원되는 것은 결국은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고 모두를 망하게 만드는, 정부가 정책자금을 넣어 가지고 국민 모두를 괴롭히고 모두를 못살게 만드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소상공·자영업자들을 감축시켜 나가는 정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보호 지원보다는 소상공인의 성장 쪽에 방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소위원회 회부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철민 예산결산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을 잘 심사하셔서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저를 포함하여 강승규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김원이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박상웅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송재봉 위원님, 오세희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허성무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을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산업통상자원특허(13인)	곽상언 권향엽 김원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7)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김한규 송재봉 장철민	
	김성원 나경원 박상웅 ◎박성민 이종배	국민의힘(5)
	김종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중소벤처기업(13인)	김동아 ◎김원이 박지혜 오세희 이재관 정진욱 허종식	더불어민주당(7)
	강승규 구자근 박형수 서일준 정동만	국민의힘(5)
	서왕진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예산결산(13인)	권향엽 김교홍 김동아 오세희 이재관 ◎장철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7)
	강승규 박상웅 박형수 서일준 정동만	국민의힘(5)
	서왕진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청원심사(5인)	김교홍 김동아 이언주	더불어민주당(3)
	구자근 ◎서일준	국민의힘(2)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25인)

강승규 곽상언 권향엽 김교홍 김동아 김성원 김성환 김원이 김정호 김종민
 나경원 박상웅 박성민 박지혜 박형수 서일준 송재봉 오세희 이언주 이재관
 이철규 정동만 정진욱 허성무 허종식

○출장 위원(3인)

구자근 김한규 장철민

○청가 위원(2인)

서왕진 이종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유인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제1차관 문신학
 제2차관 최남호
 통상차관보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이용필
 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에너지정책실장 이호현
 정책기획관 안창용
 산업공급망정책관 나성화
 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
 에너지정책관 조익노
 전력정책관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통상정책국장 장성길
 무역정책관 서가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차관 김성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노용석
창업벤처혁신실장 임정욱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원영
정책기획관직무대리 장세훈
중소기업전략기획관 김정주
글로벌성장정책관 이순배
기술혁신정책관 박용순
지역기업정책관 권순재
창업정책관 조경원
벤처정책관 김봉덕
소상공인정책관 이대건
상생협력정책관 김우순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황영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강석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박성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강경성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이상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민병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전윤중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이승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 김영신
창업진흥원
원장직무대리 최열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원영준

【보고사항】

○의안 회부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2025. 4. 22.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8)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025. 4. 22. 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3)

이상 2건 4월 23일 회부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3.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3.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7)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3.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3.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5)

이상 4건 4월 24일 회부됨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5.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5.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4)

이상 2건 4월 28일 회부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6)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5. 4. 28.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3)

이상 3건 4월 29일 회부됨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8)

4월 30일 회부됨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4. 30.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4)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5)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25. 4. 30. 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76)

이상 6건 5월 1일 회부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0)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9)

이상 5건 5월 2일 회부됨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2025. 5. 2. 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8)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5. 2.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3)

이상 3건 5월 7일 회부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7.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7)

5월 8일 회부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8.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8.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1)

이상 2건 5월 9일 회부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9.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9.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3)

이상 2건 5월 12일 회부됨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3.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3.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3.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3)

이상 3건 5월 14일 회부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4.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6)

5월 15일 회부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6.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6.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9)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5. 5. 16.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0)

이상 3건 5월 19일 회부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1.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1.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2)

이상 2건 5월 22일 회부됨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2. 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2)

5월 23일 회부됨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3.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3.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1)

이상 2건 5월 26일 회부됨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5. 27.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5)

5월 28일 회부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8.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1)

5월 29일 회부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9.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6)

6월 10일 회부됨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6. 11.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1.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8)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1.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7)

이상 3건 6월 12일 회부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2.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5)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6. 12. 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2.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8)

이상 3건 6월 13일 회부됨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0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9)

이상 3건 6월 16일 회부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6.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6.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0)

이상 2건 6월 17일 회부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0)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00)

이상 6건 6월 18일 회부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9.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4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9.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43)

이상 2건 6월 20일 회부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77)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1)

2025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2)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3)

이상 4건 6월 23일 회부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3비상계업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025. 6. 23.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5)

6월 24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2.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2.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2.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3)

이상 3건 4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5)

5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8)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5. 5. 1.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8)

이상 2건 5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50)

5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5. 5. 14.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1)

5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2025. 5. 30.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39)

6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5. 6. 2.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0)

6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25. 6. 13.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7)

6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

(2025. 6. 20.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7)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2025. 6. 23.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2)

이상 2건 6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44	35	17	3	220
중소벤처기업부	17	10	26	3	67
특허청	4	9	10	3	30